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과제 탐구 - 교육 분야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An exploration of the directions and tasks of educ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education***

강구섭 (Gu-Sup Kang)**

채수은 (Soo Eun Chae)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Objective: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achievements and issues of various activities promoted in the field of education related to unification of Korea, and North Korean education. We also presented the foundations, tasks, and plans for peace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Method: The study analyzed and synthesized the literature presented in South Korea.

Result: One of the major issue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 was the limitation of shared values of unific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teachers, and local environment. The other issue regards paucity of programs that are inclusive for both the North Korean and North Korean students beyond many pre-existing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 students to adjust to South Korean society. Entering into the 21st century, the unification education practitioners conducted more specific and practical activities: the direct contact through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North and South Korean students was carried out at the civilian level beyond public or national policy.

Conclusion: Reflecting these achievements and issues, psychological, human, physical, and legal foundations were suggested for future unification education. It was suggested that resolving hostility toward North Korea should be given priority, that the forum for unification issues should be expanded, and that a model for the integration of the inter-Korean education system should be presented.

Key words : Unification education, North Korean refugee, peace, Korean education system, inclusion, integration

* 2020년 05월 11일 접수, 06월 11일 최종수정, 06월 12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제35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 학술대회(2018.11.3.)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강구섭(Gu-Sup Kang) 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Gusupkang@gmail.com

*** 채수은(Soo Eun Chae)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강릉원주대학교 교직과정 부교수, 강원도 강릉시 경포동 죽현길 7, schae@gwnu.ac.kr

I. 서론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북미 핵협상의 교착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분단 70년을 넘어서는 현재 남북 관계와 관련된 정책은 평화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김종균, 2019) 그에 맞춰 평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남북 정상 회담 이후 형성되었던 우호적 분위기가 다소 소강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노력,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남북 간의 다양한 접촉과 교류가 증가하면서 한편으로 상호간의 이해 확대 및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남과 북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향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교육의 역할은 중대하다. 현재의 상황을 일회성 사건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놓는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역할을 교육 분야가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한만길 외, 2000). 실제로 통일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조정아, 2014), 탈북학생교육을 위한 연구(강구섭 외, 2015), 남북한 간 학술 교류사업(고대영, 2018) 등의 다양한 연구와 활동들이 남북한 관계, 국제 정세 등의 시대적 영향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 통일을 향한 교육 활동이 활발해진 것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방향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통일, 북한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추진된 다양한 활동의 성과와 문제점, 쟁점을 살펴보고, 평화와 통일 교육 관점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반, 교육이 담당해야 할 과제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통일의 영역으로서 교육

통일의 과정 및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대체로 남북한의 통일은 정치, 경제, 행정, 교육 체제 등 남북한 사회 체제의 각 영역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방식을 궁극적으로 방향으로 하고 있다. 평화에 기반을 둔 장기간의 교류, 협력의 과정을 통해 양측이 상호 공존하는 과정을 거쳐 체제 통합을 이루는 방식으로 통일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 각 영역의 통합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이 고려되는 가운데 이뤄지며 통합 과정에서 각 영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특성이 계속 유지되기도 하지만 이질적인 체제와의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각 영역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한 통일, 통합 방식을 고려한 체제 통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체제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하나인 교육 분야는 제도이자 가치로서 고유무형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체제에는 학제, 행정체제 등의 제도적 측면의 성격 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이념 등의 다양한 요소가 총체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신일, 1993: 53). 따라서 교육체제의 통합은 단순히 외형적인 체제, 제도의 측면을 넘어서 가치, 문화, 이념의 통합을 포괄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체제의 통합은 단순히 기존의 체제 개편 뿐 아니라 각 체제가 가지고 있는 내적 가치, 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장기간에 걸쳐 바뀌는 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교육체제는 각종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개인에게 학력,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다음 단계의 진학, 취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자격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교육체제는 통일을 비롯한 다양한 전환기 상황에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 교육 분야는 통일이라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서 내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강구섭, 2017: 62). 교육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화가 요구되며 이는 통일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의 경우에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은 학제, 교육법 등과 같은 물리적 측면과 이념, 가치, 문화 등의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 분야가 통일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과제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대응이 요구된다(Figure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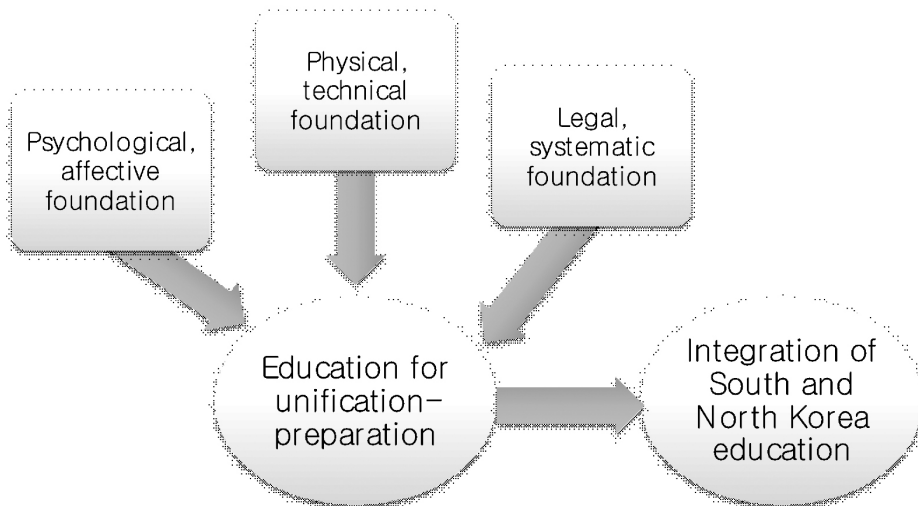


Figure 1. Education Integration Model Based on Areas of Foundations for Unification

2. 통일 대비 교육 분야의 과제

통일 준비와 관련하여 교육 분야에 다양한 과제가 대두될 수 있다. 우선 교육 분야는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이 개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교육 체제의 통합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즉, 통일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남북한 교육체제의 통합을 위한 관련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통일이라는 정치적 진공 상태는 기존의 교육체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내재해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단순히 기존 체제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 양 체제의 특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기존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교육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 분야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통일 과정에서 기존 교육체제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체제로 개편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 후 동서독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연구에 따르면 위계적 학교 체제 속에서 교육 받은 서독 학생들은 소위 “큰 물고기의 작은 연못 효과(Big Fish Little Pond)”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Marsh, Koller, & Baumert, 2001). 즉 개인적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에 비해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각 학교 수준에 따라 매우 낮았고 이러한 현상은 동독 학생들이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동서독 학생들의 자아인식의 차이는 각각 처한, 혹은 처해온 사회 체제의 차이와 그에 따라 각 사회에서 공유되는 사회적 믿음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남북한 학생들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와 지식 전달 뿐 아니라 보다 철학적인 가치와 이념을 다루는 측면에서도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교육 분야의 통일 대비 과제로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정서적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장기간의 분단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양 체제의 구성원이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 통합의 역할을 교육 분야가 수행해야 한다. 장기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형성한 동서독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내적 통합의 문제는 통일 전 단계에서부터 남북한의 심리적 정서적 통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강구섭, 2012). 이에 교육 분야는 통일 사회를 살아가는 남북한 주민이 정서적으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교육 분야는 체제 통합, 남북한 학생의 차이 완화, 심리 정서적 통합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제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내적 토대 구축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통일인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통일 교육 연구는 각 분야와 요구에 부응하여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

는데 본 연구는 위에 제시한 이론적 틀에 따라 기존의 통일 교육 연구 및 실천 노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통일교육 관련 문헌, 통계, 정책 연구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Figure 1에 제시된 바, 심리,정서적, 기술적, 법적적 기반 하에 통일 대비 교육의 현황과 쟁점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통일 한국의 교육통합을 위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III. 평화 통일평화와 통일 대비 교육 분야의 현황과 쟁점

1. 통일교육의 성과와 문제점

70여 년간 지속된 남북한 분단을 극복해야 하는 숙원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 통일 문제와 관련된 교육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에 1950년대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정규학교 및 사회의 각 분야에서 분단, 통일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 통일 북한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Figure 2 참조). 이러한 분단, 통일 관련 교육은 시대마다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1980년대까지의 멸공교육, 반공교육, 1990년대 후반까지의 통일안보교육, 2000년대 초반 이후의 통일교육, 최근의 평화·통일교육 등 시대적 환경, 남북한 관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이뤄졌다(박찬석, 2002).

해방 후 통일교육은 국민들의 분단 상황에 대한 이해제고라는 성과를 낳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였다. 우선 통일 교육은 남북관계의 특성,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 등 시대 상황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단순히 통일 인식 함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한만길 외, 2000: 41). 교육과정 개편과정에서 정부의 방향, 남북관계, 국내외의 상황 특성에 따라 관련 교육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 남북한 간의 관계에 따라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주요한 강조점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변함으로써 큰 문제를 야기하였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였다(조정아, 2007). 이에 국내외 정치적 환경, 남북 관계 등 여러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통일인식 함양이라는 기본 목적을 일관되게 지향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협약과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강구섭 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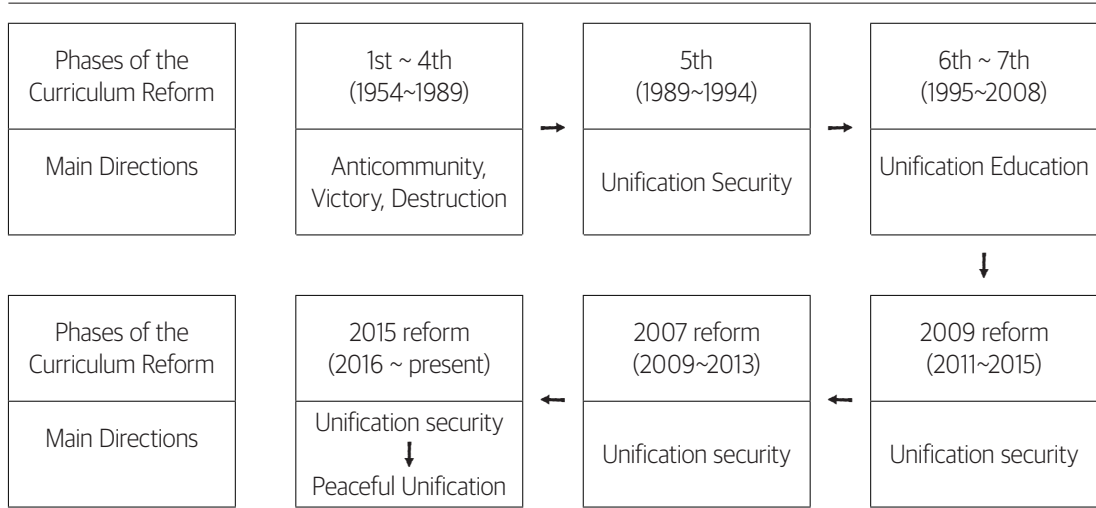


Figure 2. Dir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by the Curriculum Reform Phases

지금까지 시행된 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은 교육주체에 따른 일관성 부족의 문제이다. 즉 적절한 교육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내용과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 실행 주체의 관심과 전문성에 따라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통일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나 교사에 의해 통일교육이 실행될 경우,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관심을 고려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통일교육이 활발히 이뤄진다(강구섭 외, 2014: 99). 반면, 통일교육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나 교사를 통해 교육이 이뤄질 경우, 교과 내용을 형식적으로 다루거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등 수동적 방식으로 통일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통일교육이 이뤄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양적 질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일 교육을 실행하는 지역 사회의 특성도 교육의 양적 및 질적 수준, 효과 등에 영향을 미쳤다(문장순 외, 2017). 통일 분단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수도권은 통일교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지리적 심리적으로 분단, 통일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는 지방은 관심의 결여와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수도권과는 다른 수준의 통일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육은 이뤄지고 있는 학교, 교사, 지역 환경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통일인식의 함양이라는 목적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 통일사회의 예비적 경험으로서 탈북학생 교육

남북한이 공존하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북한교육, 북한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에 입국하여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탈북학생은 우리 사

회에게 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하던 북한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강구섭, 2018).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남북한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통일 사회의 학교 모습을 선형적으로 보여주는 ‘먼저 온 미래’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윤인진, 2009: 63). 따라서 교육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북한 학생의 공존 상황은 통일, 북한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 연구자에게 통일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실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전후부터 탈북학생 교육은 통일, 북한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남한에 입국하여 사회 및 학교에서 생활하는 탈북학생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2,700여명의 탈북학생이 남한에서 학업을 하고 있다(교육부, 2019). 남한의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체 학생의 규모 대비 탈북학생의 규모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탈북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수는 전체 학교의 10% 가량에 이르고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다.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교사와 일반 학생의 입장에서 북한교육, 북한청소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Table 1. Schooling Statistics of North Korean Youth Refugees in South Korea (unit : person)

Category	School Level								Full-time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e	Total
	Primary		Middle		High		Other			
	Boy	Girl	Boy	Girl	Boy	Girl	Boy	Girl		
Enrollment (April 2019)	457	420	390	348	358	394	73	91	230	2,761
	877		738		752		164			
	2,531									

Source: Korea Ministry of Education (2019), North Korean student training statistics

남한에 입국한 탈북학생들은 남한 사회 및 학교 적응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극심한 위협 상황을 동반하고 있는 탈북 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정서적 충격, 탈북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업결손, 이전에 생활하던 곳과는 다른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충격, 남한사회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 등 많은 문제들이 탈북학생의 남한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강구섭 외, 2015a). 특히 2000년대 이후 부터는 부모 가운데 한쪽이 북한이탈주민 이면서 제3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남한에 입국한 학생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남한 입국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2011년 경, 남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 탈북학

생의 36% 가량을 차지하던 제3국 탈북학생의 비율이 2015년에는 과반을 넘었다. 이러한 제3국 배경 탈북학생들은 태어난 지역의 언어를 모국어로 활용하다가 청소년기에 남한에 입국한 경우가 많아 남한 입국 이후 언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강구섭 외, 2015a).

남한과는 이질적인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학생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치, 지식, 경험을 습득하고 생활하는 과정은 통일 준비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향후 북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증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북학생이 남한 사회 및 학교에서 원만히 생활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탈북학생과 남한학생의 적극적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북한 사회에 대한 직간접 경험으로서 교육 분야의 남북 교류

남북한 교육 분야의 교류는 교류의 대상인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 분야의 다른 영역에 비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대체로 1990년대 초까지는 개인 단위의 간헐적인 접촉이 추진되었고, 그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정부 주도로 교육 분야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청소년 체육 선수단의 교환경기, 북한선수단의 남한 방문, 청소년 예술단의 남한 방문 등의 행사가 추진되었다(김창환 외, 2013: 29). 2000년대 이후에는 민간단체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어린이단체(어깨동무, 청소년 적십자)가 참여하여 북한 어린이들과 나무심기, 숲 가꾸기와 같은 친선 활동을 실시하였다. 남한 청소년의 북한 방문 뿐 아니라 북한청소년(체육선수단)이 남한에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치르는 것과 같이 북측의 남측 방문 형식의 교류도 간헐적으로 추진되었다. 체육선수단이나 예술분야의 협력 이외에 교수, 연구자의 북한 관계자 접촉, 공동학술행사 등도 일부 이뤄졌다. 이를 통해 남북한 교육 분야에 대한 상호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 분야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한만길 외, 2017: 7-13).

남북한 교육 분야의 직접적인 교류는 분단, 통일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던 양측이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 및 협력을 통해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경험하던 교육 분야의 교사, 학생, 연구자에게 북한 측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북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로 활용되었다(김창환 외, 2013: 28). 이처럼 남북한의 직접적 교류는 참여의 기회, 인원 등의 양적 측면에서는 제한되었지

만 상호간 직접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를 통해 남북 간의 관계가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기능하였다(한만길 외, 2017: 152). 그렇지만 양측의 관계가 원활한 상황에서만 교류가 이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류가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해 지속성 유지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의 통일 준비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만남은 다른 교육활동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성과를 도출하였다. 예컨대 1990년대까지 비합법적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남북 학생들의 접촉은 2000년대 이후 학술대회나 교외활동을 정부 및 민간을 통해 실시하게 되어 보다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4. 교육 분야 통합 관련 연구

남북한 교육체제 통합을 비롯한 교육 분야의 통합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Table 2 참조). 1980년대 말 부터 동구권 붕괴, 구소련의 체제 전환, 독일 통일 등의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1994년 북한의 당시 최고 권력자가 사망하면서 북한 체제에 급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분야의 통합방안 수립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의 경향을 개관하면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대체로 북한의 변화 상황에 대비한 교육통합 방안 수립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는 교육통합을 위한 사전 대비 측면에서 필요한 통일 전 교육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는 남북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교육 분야 지원 방안과 교육통합을 위한 방향을 전망하는 연구가 주로 추진되었다. 2012년, 북한의 권력자 사망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서 관련 연구 추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통합 방안 수립 연구,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총론 개발 등의 연구가 추진되었다(강구섭 외, 2015b).

교육통합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교육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동반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육통합 방안 연구와 함께 북한교육에 대한 연구가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이에 199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 교육 및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 교과서나 교육 관련 북한 발간물 등 북한 원전을 활용하거나 교육 부문에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교육 체제와 특성, 학생의 양태 등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였다.

대체로 통일과 관련된 교육 분야의 연구들은 기존의 남북한 교육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향후 교육통합 추진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통합 추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각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 주요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북한교육 현장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통계자료를 비롯한 관련자료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제한된 문헌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 분야 세부 영역의 통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 각 영역별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교육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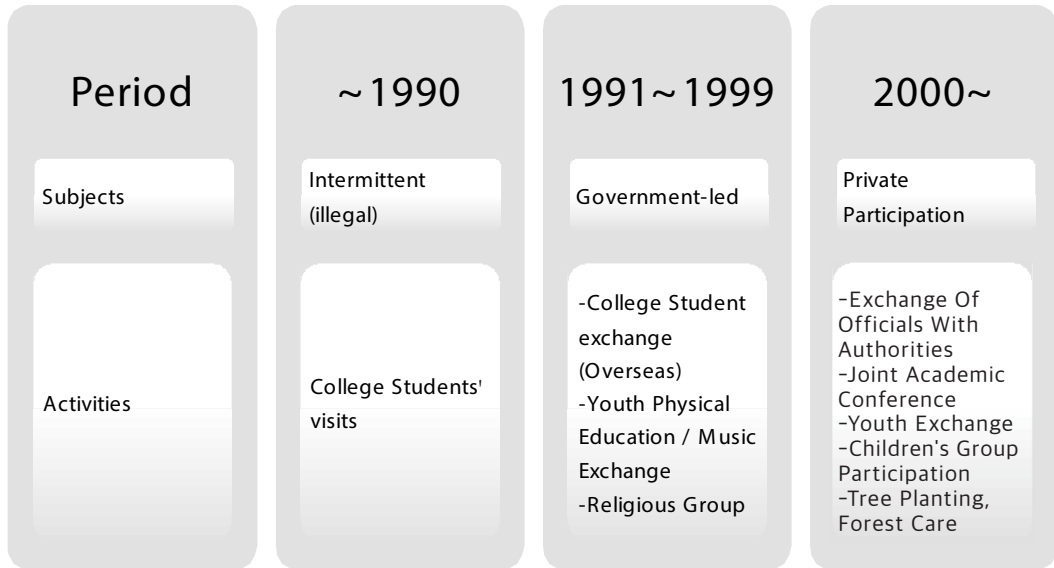


Figure 3. Educational Exchanging Activities of South-North Korean Students by Period

IV.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과제

1.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교육의 방향

본 장에서는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 기반구축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심리적 기반: 남한사회, 한반도 내 평화 분위기 조성

평화, 통일의 측면에서 교육 분야는 1차적으로 남한사회, 더 나아가 한반도 내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분단 문제에 관한 이해의 차이는 남북 간의 갈등을 넘어 남한 내

Table 2. Research Trend on South-North Korean Education

Area	Year	Author(s)	Topic
Education Integration	1991	Kim, T. W., etc.	Research on Educational Integration Policy of South-North Korea
	1992	Park, J.-Y. etc.	Education Policy Study for Unification (I) - Policy directions and tasks at each phase
	1992	Park, J.-Y. & Paek, S.-J.	Germany's Education Integration
	1993	Choi, Y.-P., etc.	Education Policy Study for Unification (II) - Model of The Reunified Korean Education System
	1993	Shin, S.-H., etc.	Germany Education Integration and The Derived Issues
	1994	Choi, Y.-P., etc.	Research on Integration of South Korea and South Korea Teacher Training Systems
	1996	Chung, Y.-G., etc.	Short-term Measures for Educational Integration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in Korea
	1997	Han, M.-G., etc.	Research on Educational Measures for National Integration (I): Tasks of National Integration before Unification
	2006	Yoon, J.-H., etc.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Supporting North Korea's Education Development
	2007	Yoon, J.-H., etc.	Study on Supporting Measures for Educat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Era
	2008	Yoon, J.-H., etc.	Perspectives on Two Korea's Education System Changes and Integration
	2012	Han, M.-G., etc.	Research on Education Integration Plan to Prepare for Unification
	2015	Kim, J. S., etc.	A Study For Curriculum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and After Unification of Korea
	2016	Kim, J. W., etc.	Teacher Re-education Plan for Inter-Korean Education Integration
	2017	Kim, J. S	Study on integrated curriculu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2017	Han, M.-G.	The task of education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current statu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education system and how to improve it	
North Korean Education	1988	Choi, Y.-P., etc.	Comparative study of the education system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1991	Lee, C. H.	Analysis of North Korean Chosun History textbooks
	1994	Han, M.-G., etc.	North Korean education I received
	1998	Han, M.-G., etc.	North Korea Education Status and Operational Analysis
	2000	Han, M.-G., etc.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Levels of North and South Korean Students
	2001	Han, M.-G., etc.	Comparative study of the education syste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2003	Han, M.-G., etc.	The role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2013	Cho, J. A.	The birth of a new generation: generational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youth

에서 심각한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찬석, 2019). 이러한 갈등은 남북한 통일 문제 뿐 아니라 경제, 복지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교육 분야는 사회의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심리적 갈등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해야 해야 한다. 특히 남한 내 세대 간,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조사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그 이후 태어난 세대 간에 느끼는 심리적 상태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정, 김선, 2018). 예컨대 전쟁 체험 세대는 일종의 강력한 사회적 트라우마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인식하기 때문에 감정조절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북한에 대해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아예 경험해 보지 못한 대상에게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은 ‘남남갈등’과 중첩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전 세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소위 ‘386’세대는 이전이나 이후 세대에 비해 매우 낮은 대미 선호도와 높은 대북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송샘, 이재목, 2019). 이처럼 386세대가 가지는 뚜렷한 색깔은 심리적 코호트를 형성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서 차이를 낳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세대, 구성원, 코호트가 뒤섞인 남한의 현 상황은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을 절실히 요구한다. 이러한 심리적 차이를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평화로운 공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2) 인적·물적 기반: 통일 준비를 위한 통일을 위한 거시적 기반 구축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교육 분야의 다양한 활동은 통일 준비를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거시적 방향에 따라 계획,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북한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교육 분야의 과제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분단 극복에 필요한 역량 및 경험 축적의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에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 교육 분야에서 요구되는 과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관련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통일은 북한 뿐 아니라 남한에게도 큰 도전 과제이다.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루기까지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 인력 가운데 통일 교육 담당 교사 양성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남한에 존재하는 통일교육, 혹은 탈북 청소년 담당 교사의 전문역량은 대부분 단기의 통일 교육 연수를 통해 양성되었거나 대안 교육 체제에서 교사의 자발적 역량 강화에 의존하고 있다(최성훈, 2016). 이를 보완한 체계적인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식견을 가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남한과 북한의 분단 이후 이질화된 언어적, 문화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역량을 보유한 인력과 물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병수, 2019).

통일 준비에 염두에 두어야 할 또 다른 분야로 물적 기반 정립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 연구에서 특히 교육과 관련한 물적 기반으로 정보통신미디어 통신방안(주정민, 2004), DMZ(Demilitarized Zone) 활용(황지욱, 2012), 개성공업지구 활용 및 확장(정유석 외, 2015) 등의 과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 영토의 접점인 남북 경계선 혹은 비무장지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는 남북한 간 평화를 전제로 한 지대라는 점에서 평화적 통일 한국 준비의 결정적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 한국 달성 시 보다 광범위한 교류,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지식, 미래의 전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집약된 전문 역량은 통일 준비를 위한 구체적 기반이자 남북한의 체제 통합, 심리적 통합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경계선이 되는 DMZ와 경계를 뛰어 넘는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교류, 교역의 확대를 통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법·제도적 기반: 교육 통합 준비를 위한 교육통합을 위한 기반 구축

평화·통일 교육을 향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현 시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각 체제에 적합한 체제를 넘어 통일 전후 과정에서 체제의 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험 및 역량의 축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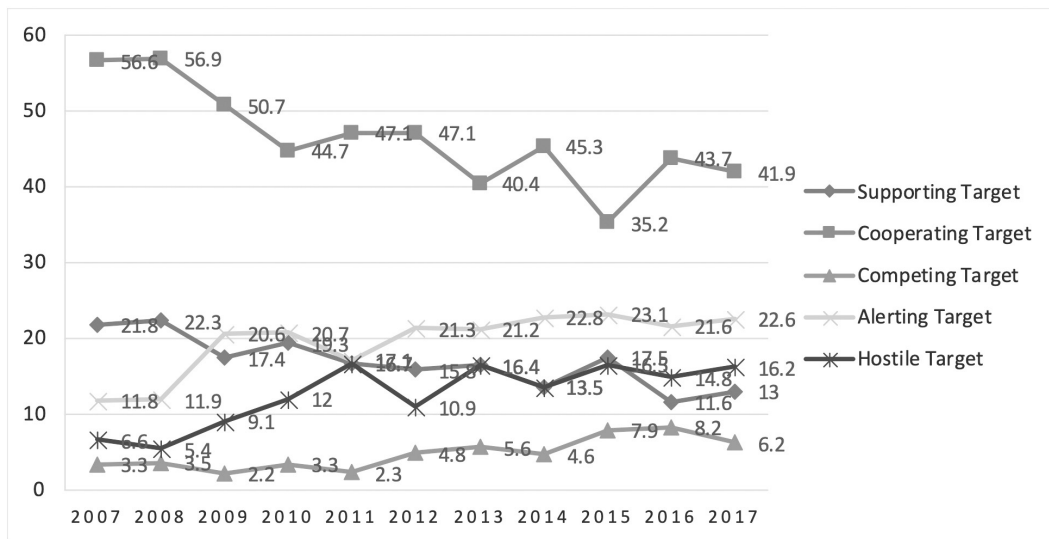
법·제도적 기반은 정형화된 체계뿐 아니라 개인의 가치, 태도, 행동과 같은 비정형적 특성도 포괄하기 때문에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한만길 외, 2012). 비정형적 특성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구성원간의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심리적 기반 형성을 함으로써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도적 측면의 정비는 재정적 이해관계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첨예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교육 분야와 직접 관련 되는 사안으로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고와 지방재정으로 세원이 나누어져 있어 이를 분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세원을 분리하는 방식(tax base separation system)과 세원을 공동화하는 방식(tax base sharing system)이 제시된 바 있는데(국회사무처, 2014). 이 가운데 어떤 방식이 우리 형편에 더욱 적합할지, 국고와 지방재정간의 분담률은 어느 정도가 나올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이전 교육정보 교류를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박신의, 2007). 남북한에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저작권법 문제가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이찬도, 2016). 북한은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가격 결정권 등 대부분의 내용을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즉 개인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교육통합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남한 내에서의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 좀 더 직접적인 제도적 문제로, 통일 후 교육과정 통합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과 남한은 지난 70여 년 간 각기 다른 교육철학에 따른 각기 다른 교육 법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교육통합이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각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에 부응하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강구섭, 2012).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교육제도의 당면 과제와 구체적 예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2. 평화·통일평화·통일을 위한 교육 분야의 과제

앞장에서 통일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기반과 그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교육 분야에서 해소해야 할 당면 과제에 대해 정리하겠다.

(1) 북한에 대한 적대인식 해소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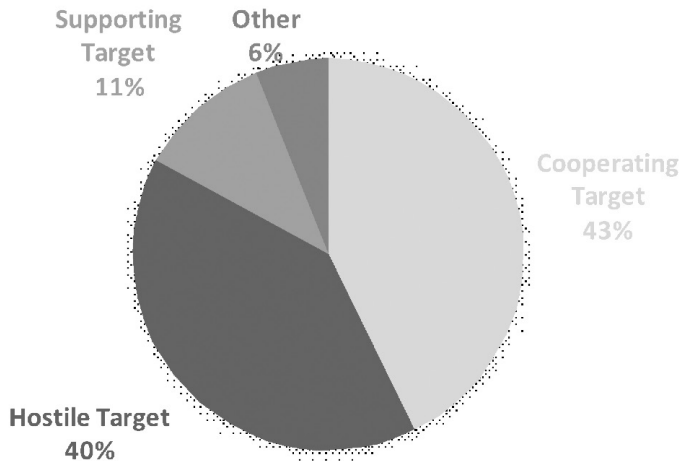


Source: Jeong, et al. (2018), 2017 Perception of Unification, p. 96.

Figure 4 South Korean Adults' Perceptions of North Koreans (unit :%)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 분야의 1차적 과제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 내지 완화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적대 인식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를 넘어 남남 갈등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1.9%로 나타났고,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6.2%,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2.6%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39% 가량으로 나타났다(Figure 4 참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파악하는 비율은 42.3%, 적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40%로 나타나 성인 대상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최근 있었던 북한선수단의 평창올림픽참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의 일련의 사건 후 이러한 적대감이 다소 변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사회 일각에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긍정적인 인식 또한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 이에 오랫동안 쌓여 있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Figure 5 참조).



Source: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2018), 2017 School Uniform Education Survey, p. 16

Figure 5. South Kore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North Koreans

수십 년에 걸쳐 남북한 사회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남북한의 동질적 요소에 대한 강조보다 이질적 특성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적극적으로 대두되고 있다(채정민, 이종한, 2004). 이러한 남북한 간의 이질적 측면에 대한 인식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정치, 언어, 생활 등의 측면에서 남북한이 이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Table 3 참조). 문제는 이러한 남북한 간의 이질성에 대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이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북한 간에 여러 차이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굳이 남북한 간에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육적 노력의 목적은 이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통합의 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차이에 대한 인식이 이로 인한 이질감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상호 이해 및 존중의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뤄져야 한다.

다른 한편,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측면에서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북한과 동일시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표출함에 따라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출신배경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감춘 채 생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의 60% 가량은 자신의 출신 배경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18% 가량만 자신의 출신배경을 알리겠다는 의견을 보였다(Table 4).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이 자신의 출신배경이 알려질 경우 차별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평화·통일 측면에서 교육 분야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 해소 및 이해 증진을 통해 미래 과제로서 통일을 위한 기본적 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현 시점에서 분단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Table 3. South and North Korean Perceptions and Inter-Korean Heterogeneity (unit :%)

	South Korea (a)		North Korea (b)		Gap (b-a)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Election	92.4	91.8	94.2	97.0	1.8	5.2
Language	81.3	82.5	93.5	90.9	12.2	8.4
Culture	77.8	77.1	89.1	96.2	11.3	19.1
Emphasis on family	64.6	57.3	90.6 (Values)	86.4	26	29.1
Social Welfare	94.9	90.5	96.4 (Standard of living)	80.3	1.5	10.2
Emphasis on money	-	62.2	-	81.1	-	18.9
History awareness	-	-	94.9	-	-	-
Mean	82.2	76.9	93.1	88.6	10.9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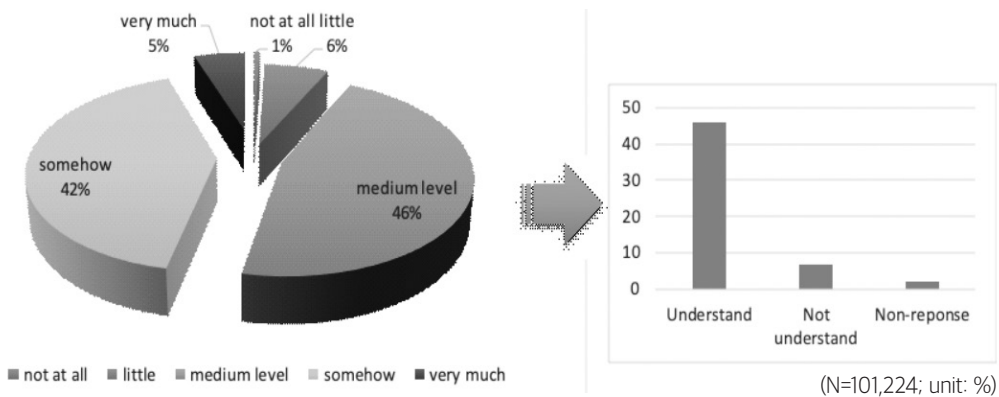
Table 4. North Korean Youth Refugees' Intentions to Open Their Backgrounds of Origin

Do your school friends know that you and your parents are from North Korea? (%)		
They know	They don't know	I am not sure
39.22	40.00	20.78
If you transfer to another school, would you let your friends to know that you and your parents are from North Korea? (%)		
I will	I won't	I am not sure
18.44	58.44	23.12

Source: Kang, et al. (2015a), Longitudinal Study of North Korean Youth Education (VI), p. 56

(2) 통일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평화 통일을 위한 과제로서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적 활동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남북한 관계의 극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관련 교육, 학습의 기회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생 및 시민 개인의 입장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습득을 통한 이해 제고를 토대로 통일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에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62%의 학생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통일부, 2017: 85). 반면, 통일에 대한 이해 수준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6% 가량만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0% 가량은 어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여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참조).



Source: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2018), 2017 School Uniform Education Survey, p. 97

Figure 6. Understanding Levels of Unification Perceived by South Kore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한편, 현재 이뤄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비롯해 통일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 측면에서 다루지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통일의 필요성, 분단의 원인 및 피해 등 통일과 관련된 당위적이고 원론적인 측면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통일의 방식, 통일의 미래상 등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지고 있고 양적으로도 매우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강구섭 외, 2014: 129). 이에 통일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인식 함양을 위해 통일교육에서 분단문제의 원인, 통일의 필요성 등의 당위적인 내용을 넘어 통일의 실행방안, 통일 미래상 등과 같은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로서 통일이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주제, 각 개인의 특성이나 관심에 기반을 둔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통일이라는 과제가 실제 진행되고 있는 현안으로서 나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육 분야 제도 통합 대비

교육 분야의 과제로 교육 통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교육 분야의 통합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분야의 통합 과제는 대체로 체제 측면(Table 5)과 비체제 측면(Table 6)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체제 측면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정규교육 영역을 비롯한 전체 교육 분야의 제도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에 이르는 학제, 교육과정 및 교사,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체제, 이를 총괄하는 교육행정체제 등의 전체 체제 측면에서 요구되는 체제 통합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특성 및 통합 과제, 통일 관련 쟁점 및 실행 방안 등 통일과 관련하여 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북한의 교육, 학교, 교육과정, 청소년, 교사 등 북한 교육의 각 영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병행하여 이뤄져야 한다.

비체제 측면에서는 제도적 체제 측면을 넘어 새로운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인식, 이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을 의미하는 체제 측면의 과제 또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가치 및 인식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비체제 측면의 과제는 체제 측면보다 더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 제도적 변화가 의도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기존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태도, 행동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요구되며 북한 교육 영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Table 5. Tasks for Educational Integration at the System Level

Area	Tasks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in North Korea
Schooling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hool form reorganization - Schooling system reform - Introdu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system - Semester operating system improvements - Synthesis of special purpose schoo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ulsory education before school - 5.3.3. Single-line schooling system - No middle school vocational education
Curricul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riculum reorganization - Instruction method - Teaching method - Evaluation method reconstr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ngle curriculum, textbook - Emphasis on Political Thought Education - Results-oriented teaching method
Teac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appointment of North Korean teachers - Re-education of North Korean teachers - Inter-Korean teacher integ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professional revolutionary - Political ideology is important
Education administration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organization of the whole system - Change in the character of the whole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ntralized, top-down - Integration of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Source: Han, et al. (2012), pp. 61-105.

Table 6. Education Integration Tasks beyond Issues of System

Category	Tasks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in North Korea
Content and meth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recting educational purpose - Creativity-oriented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unist human cultivation - Process-oriented education
Educational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horitarian atmosphere - Reorganization of hierarchical structure - Understanding education -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 Understanding of the entire educational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llective atmosphere - Hierarchical atmosphere - Memorization, unidirectional - Teacher-induced - School-oriented

Source: Han, et al. (2012), pp. 71~118.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전체 교육 기관은 학령기에 있는 학생에게 학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학력이라는 형태로 인정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음 교육 단계로 진학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교육 기관은 중단없이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통합은 전환기 상황을 비롯한 전체 상황에서 학교를 비롯한 전체 교육체제가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체제 전환 과제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강구섭, 2017: 65).

학교 내 정규 교육 뿐 아니라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통일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정,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상이한 경험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공존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행동 역량이 교육의 내용 뿐 아니라 방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는 방향으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 뿐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다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남북한 교육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탈북학생들에 대한 교육학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통일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관점과 연구물에 대한 제한된 검색, 분석으로 인해 모든 연구가 망라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연구물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들을 토대로 하지 못한 점은 추후 연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 전후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에 필요한 인식제고 및 역량 함양을 통해 체제통합을 넘어 내적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교육 분야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통일 측면에서 교육 분야의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의성 있는 내용이 통일교육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강구섭 외, 2014).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 이슈, 주제를 토대로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가 시의 적절하게 개발·제공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정규교과 교육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체험 형식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학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내용 측면 뿐 아니라 형식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 따라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회 및 경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통일교육의 기회가 양적·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체제 통합 준비 측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경험이 교육 분야의 통일 준

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체제 통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통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다양한 경험이 교육 체제 통합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경험과 체제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적절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사업의 결과들이 사업 자체의 목적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심에서 교육 통합 방안 연구도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통합 준비를 위한 각종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북한 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북한 교육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게 교육체제 통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교육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로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남북한 교육 분야의 접촉은 양적 측면에서 제한된 기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남북한 교육 영역이 상대방에 대한 실질적 경험을 통해 남북한 화해·협력의 활성화라는 1차적 목표를 넘어 상대방의 현 수준,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교류·협력이 일회성 행사의 성격을 넘어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즉, 각종 문화 체육 행사 참여 등의 단회적 행사 뿐 아니라 학생 수학여행, 교사 세미나, 학술대회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통해 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이 보다 정례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대상자 뿐 아니라 교육 분야의 구성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과의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체제 통합 과정이 기존의 교육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모색할 수 있는 등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동서독 통일 후 추진된 교육체제 통합 과정은 구서독의 교육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도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남북한 교육체제 통합 과정은 남북한 교육체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교육체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교육 체제 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iedel, 1999). 즉, 교육 분야의 통합 준비는 통일을 대비하는 것을 넘어 미래 한반도의 교육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Marsh, H. W., Köller, O., & Baumert, J. (2001).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 school systems: Longitudinal multilevel modeling study of the big-fish-little-pond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8(2), 321-350.
- Riedel, J. (1999): Systemwechsel und Transformationsprozess in Ostdeutschland: Erfahrungen und Neuorientierung der Förderpolitik. In: Waschkuhn, A. (Hrsg.): Politik in Ostdeutschland, München.
- 강구섭(2012).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 : 학제, 교육과정, 교사 재임용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2(1), 45-69.
- [Kang, G.-S. (2012), Case study on integration of the east and west German educational system after German unification-focused on educational structure, curriculum, teacher policy,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2(1), 45-69.]
- 강구섭 외 (2015a),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V**. 한국교육개발원.
- [Kang, G.-S., etc. (2015a), North Korean youth education termination study v.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강구섭 외 (2015b),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분야별 미시적 연구**, 통일연구원(비공개).
- [Kang, G.-S., etc. (2015b), Micro-research by field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era. Unpublished report, Korea Institute for Unification.]
- 강구섭 (2016), 한국 통일교육의 현황과 독일 사례의 시사점, **2016 통일부 한독자문회의 자료집**, 통일부.
- [Kang, G.-S. (2016), Current status of Korea's unification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in the case of Germany, 2016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Korean-Korean Advisory Committee,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 강구섭 (2017), 통일독일의 학제통합 과정 연구, **비교교육연구**, 27(1), 51-76.
- [Kang, G.-S. (2017), A Study on the integration process of school structure in east Germany after German unification,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7(1), 51-76.]
- 강구섭 (2018), 남북관계 전환기 탈북청소년 교육의 과제,, **월간교육**, 2018 9~10월호.

- [Kang, G.-S. (2018), Tasks for North Korean youth education in the transition period of inter-Korean relations, *Monthly Education*, September-October 2018]
- 강구섭 외 (2014), **중학교 도덕, 역사 교과서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 분석 및 보완 방안 연구**, 통일부.
- [Kang, G.-S., etc. (2014), A study on the contents of junior high school morals and history textbook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and supplementary measures.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 고대영 (2018). 남북 통일 사전 편찬 사업의 방향과 전망-“겨레말큰사전”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0(50), 97-110.
- [Ko, D.-Y. (2018). Direction and prospect of compiling the Unification dictionary, *Journal of Bangyo Language and Literature*, 50(50), 97-110.]
- 교육부 (2017), **2017 탈북학생 교육 통계**, 교육부.
- [Korea Ministry of Education (2017), Education statistics for north Korean youth refugees.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국회사무처 (2014). **통일을 대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 및 자주자원 확충을 위한 법제도 연구 : 독일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 [Korea Ministry of State (2014). A study on the legal system to improve the local financial coordination system for unification and to increase voluntary resources: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e German case. Dong-A University.]
- 김병수 (2019). 북한 언론 매체 분석을 통한 국어 이질화 양상 연구: 신문, 잡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학회지**, 19(23), 1321-1348.
- [Kim, B.-S. (2019). A Study on the aspects of Korean language heterogeneity: focused on the North Korean newspapers and magazin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3), 1321-1348.]
- 김정원 외 (2016), **탈북학생 교육 백서**, 한국교육개발원.
- [Kim, J.-W., etc. (2016), North Korean refugee education white paper.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김정원 외 (2016),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교사 재교육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Kim, J.-W., etc. (2016), Teacher re-education plan for education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김종균 (2019). 코리언 평화 공동체를 위한 통합서사의 기능, **통일인문학**, 77, 5-36.

[Kim, J.-K. (2019). The function of integrated narrative for the Koran peace community. *Unification Humanities*, 77, 5-36.]

김진숙 (2017),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 교육과정평가원.

[Kim, J.-S. (2017), Study on integrated curriculu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Korea Curriculum Evaluation Institute.]

김진숙 외 (2015), **통일 및 미래사회 대비 남북한 초중등학교 통합 교육 과정 개발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m, J.-S., etc. (2015), A Study for curriculum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uring and after unification of Korea. Korea Curriculum Evaluation Institute.]

김창환 외 (2013), **남북 청소년 교류 추진 방향 연구**. 한반도평화연구원.

[Kim, C.-H., etc. (2013), Study on the direction of promoting inter-Korean youth exchange. Korean Peninsula Peace Institute.]

김태완 외 (1991).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Kim, T.-W. (1991). Research on educational integration policy of South-North Korea.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김희경, 신현균 (2015).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비교 :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347-367.

[Kim, H.-K & Shin, H.-K. (2015). A comparison of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North Korean youth refugees and South Korean adolescents: focused on gender and age, *Korea Journal of Women Psychology*, 20(3), 347-367.]

김희정, 김선 (2018). 세대별 통일교육의 정서적 접근 방식 : 정서조절 방식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76, 233-254.

[Kim, H.-J. & Kim, S. (2018). Unification consciousness and unification education by generation : emotion regulation approach, *Unification Humanities*, 76, 233-254.]

문민영 (2017), **남북한 교육통합의 과제 :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법무부.

[Moon, M.-Y. (2017). The task of education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current

statu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education system and how to improve it. Korea Ministry of Justice.]

문장순 외 (2017), **경북의 통일준비 기본 구상 최종보고서**, 경북통일교육센터

[Moon, J.-S., etc. (2017), Final report on Gyeongbuk's basic plan for unification. Gyeongbuk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박신의 (2007). 남한과 북한, 통일의 문화적 조건 :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문화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0(10), 81-110.

[Park, S.-U. (2007). The cultural condition of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10(10), 81-110.]

박재윤 외 (1992).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연구(I) - 통일 단계별 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Park, J.-Y. (1992). Education policy study for Unification (i) - policy directions and tasks at each phas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박재윤, 백성준 (1992). **독일의 교육통합**. 한국교육개발원.

[Park, J.-Y. & Paek, S. J. (1992). Germany's education integr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박찬석 (2002),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4(1), 139-160.

[Park, C.-S. (2002), A study on transi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its alternative in a school, *Korea Journal of Civic Education*, 34(1), 139-160.]

박찬석 (2019). 남남갈등의 기원과 해소방안 모색, **통일교육연구**, 16(1), 37-59.

[Park, C.-S. (2019). Searching for the origins and solving-problems of the South-South Conflict, *Korean Journal of Reunification Education*, 16(1), 37-59.]

송샘, 이재묵 (2019).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 : 남남갈등과 세대갈등의 중첩 가능성 연구, **지역과 세계**, 43(1), 117-141.

[Song, S. & Lee, J. M. (2019). The analysis of perception of perennial countries on Korean Peninsula by generation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the overlap between South-South conflict and generation conflict,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43(1), 117-141.]

윤인진 (200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정책과제**, 연구자료 RRM 2009-5 한국교육개발원 통일

교육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Yoon, I. J. (2009), *Social responsibility and policy tasks for North Korean refugees, Research Materials Unification Education Forum RRM 2009-5*.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윤종혁 외 (2006), **북한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향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Yoon, J.-H., etc. (2006),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supporting North Korea's education development*.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윤종혁 외 (2007),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교육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Yoon, J.-H., etc. (2007), *A Study on supporting measures for educat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era*.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윤종혁 외 (2008), **남북한 교육 체제 변화와 통합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Yoon, J.-H., etc. (2008), *Perspectives on two Korea's education system changes and integr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이찬도 (2016).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 분석과 평가 :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6), 259-272.

[Lee, C.-D. (2016). An analysis and assessment for north korean copyright law: focus on the comparison of North-South Korea copyright law, *Korean Journal of Entertainment Industry*, 10(6), 259-272.]

이찬희 (1991), **북한 조선역사 교과서 내용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Lee, C.-H. (1991). *Analysis of North Korean Chosun History textbook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정근식 외 (2018), **2017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Chung, G.-S., etc. (2018), *2017 Unification consciousness surve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Unification and Peace.]

정용길 외 (1996), **통일 상황 대비 교육통합 단기대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Chung, Y.-G., etc. (1996), *Short-term measures for educational integration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in Korea*.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정유석, 박용환, 김관호 (2015). 개성공업지구 확장을 고려한 남북농업협력 방안, **통일문제연구**, 27(1), 169-204.
- [Chung, Y.-S., Park, Y.-H., & Kim, K. H. (2015). The plan for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considering the project for expansion Kaesong industrial complex,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7(1), 169-204.]
- 조정아 (2007),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16(2), 285-306.
- [Cho, J.-A. (2007), The issues and tasks in education for national integration,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16(2), 285-306.]
- 조정아 (2013),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한국교육개발원.
- [Cho, J.-A. (2013), *The birth of a new generation: generational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youth*.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조정아 (2014),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통일정책연구**, 23(2), 177-206.
- [Cho, J.-A. (2014),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policy in the Kim Jong-un era and the reform of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23(2), 177-206.]
- 주정민 (2004), 남북한 정보통신미디어 교류협력 방안 연구, **정치정보연구**, 7(2), 17-46.
- [Joo, J.-M. (2004),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using media, *Korea Journal of Political Information*, 7(2), 17-46.]
- 최봉대 (2013), 북한의 도시 연구, 미시적 비교의 문제틀 모색과 방법적 보완 문제, **현대북한연구**, 16(1), 70-105.
- [Choi, B.-D. (2013). North Korea's urban marketization: analytical method and data-related problems,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16(1), 70-105.]
- 최성훈 (2016). 교사의 다문화 역량과 탈북청소년 대상 기독교대안교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7(47), 255-311.
- [Choi, S.-H. (2016). The multicultural competence of teachers and christian alternative education for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47(47), 255-311.]
- 최영표 외 (1988),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Choi, Y.-P., etc. (1988),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 system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최영표 외 (1993).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연구(II) - 통일한국 교육제도의 새 모형**, 한국교육개발원.
- [Choi, Y.-P., etc. (1993). *Education policy study for Unification (II) - model of the reunified Korean education system*.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최영표 외 (1994).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Choi, Y.-P. etc. (1994). *Research on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eacher training system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통일부 (2018), 2017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통일부.
-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2018), *2017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survey report*.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 한만길 외 (1994). **내가 받은 북한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Han, M.-G., etc. (1994). *North Korean education I received*.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한만길 외 (1997).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 통일이전 민족통합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Han, M.-G., etc. (1997). *Research on Educational Measures for National Integration (I): Tasks of National Integration before Unific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한만길 외 (1998).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Han, M.-G., etc. (1998). *North Korea education status and operational analysi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한만길 외 (2000). **남북한 학생의 학력수준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Han, M.-G., etc. (2000).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levels of north and South Korean student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한만길 외 (2000). **남북한 화해 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Han, M.-G., etc. (2000). *Unification education tasks to promote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한만길 외 (2001). **남북한 교육체계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Han, M.-G., etc. (2001), *Comparative study of the education syste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한만길 외 (2003), **북한의 경제발전과 교육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

[Han, M.-G., etc. (2003). *The role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educ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한만길 외 (2012),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Han, M.-G., etc. (2012). A Study on the inter-Korean education integration plan, *Research report of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만길 외 (2017), **통일을 이루는 교육**, 교육과학사.

[Han, M.-G., etc. (2017), *Education for achieving unification*, Kyoyookbook.]

한만길 외 (201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Han, M.-G., etc. (2012). *Research on education integration plan to prepare for Unific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황지욱 (2012). 통일을 향한 DMZ의 협력적 이용 및 관리 : 강원도 북한강 수계를 대상으로, **통일전략**, 12(1), 139-160.

[Hwang, J.-W. (2012). Joint use and management of dmz in the area of North Han river toward Korean unification, *Unification Strategy*, 12(1), 139-160.]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과제 탐구 - 교육 분야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An exploration of the directions and tasks of educ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education

강구섭 (전남대학교)

채수은 (강릉원주대학교)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논문초록

목적: 본고에서는 통일, 북한과 관련하여 교육 영역에서 추진된 다양한 활동의 성과와 쟁점을 살펴보고, 평화와 통일 교육 기반과 과제,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법: 국내에서 발표된 문헌을 분석, 통합하였다.

결과: 먼저 통일과 관련된 교육영역의 주요 쟁점으로 학교, 교사, 지역 환경의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통일 인식의 한계, 탈북학생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탈북학생과 남한학생의 적극적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이 부재함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었다. 21세기로 들어서서는 남북한 학생들의 교외활동을 통한 직접적 접촉이 민간수준에서 진행되는 등 매우 구체화되는 양상을 띠는 등 성과를 보였다.

결론: 이러한 성과와 쟁점을 반영하여 향후 통일 교육을 위한 심리적, 인적, 물질,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에 대한 적대 의식해소가 우선시 되며,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 남북 교육 체제 통합을 위한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평화, 한국교육체제, 통합